

주일 2 부에배

10:15 ~10:30 전교인 찬양 연습

10:30 ~10:50 교회소식 / 성경 봉독

10:50 ~11:00 예배를 위한 개인기도

※ 예배로의 부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새 621)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목 회 기 도 금동성 장로

※ 봉 헌 / 감 사 봉헌: 문선주 성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 전 성 도 찬 양 너희 죄 흉악하나 (새 255)

설 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26
“교회의 사명” 창 1:14

찬 양 / 기 도 주님 말씀하시면
십자가 그늘 아래(415 장)

※ 축 도 강래성 목사

청지기 보고

지난주일 청지기 보고

연 보	\$2,302
감사연보	\$200
특별연보(지목)	
특별수입	
합 계	\$2,502

월별사역계획

매주일오후 3 시-당회

첫째주-한가족특강

둘째주-동산모임

셋째주-소그룹 모임

넷째주-소그룹 모임

다섯째주-제직회

성찬 -2 월, 4 월, 7 월,
11 월

10 월 회중기도 및 봉사명단

	주일 1 부	주일 2 부	수요기도회	봉헌자
첫째	김태완	금동성	최영옥 (10/03)	서영주
둘째	유창환	김부익	홍혜준 (10/10)	
셋째	김은석	문명철	강한나 (10/17)	
넷째	이의로	서성권	금매리(10/24)	
			김영순(10/31)	

이단 3- 구원과 5

박옥수의 구원관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 회개를 부인하는 것이다. 삶에서 나타나는 죄가 있음을 인정은하나 박옥수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범죄로 구분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는 것으로 해결되었고, 삶에서 나타나는 범죄는 이미 예수의 용서 안에 있는 것이 신자이기에 용서를 구할 필요 없이 범죄를 인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것을 박옥수는 회개가 아닌 자복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8-10)고 말한다. 신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은혜가 더할수록 신자의 감사와 찬송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일 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또한 지금은 은혜 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한다. 구약 자체가 이미 완성된 예언이므로 더 이상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신자가 율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애당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무지일 뿐이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할 실천을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말한 것이다(갈 3:24). 종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신도들로 하여금 개인이 재산을 비축하는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결국 자신들의 단체에 헌금하게 하는데 힘을 쏟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든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마치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 또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자의 특징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파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깨달음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파의 교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 곧 구원 받는 것임을 신도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함과 불의함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깨달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마음 두게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교회소식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교우소식- 여행: 정윤구 집사 가정.
- ❖ EM 중, 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대니 박 목회 후보생을 임명합니다.
- ❖ 오늘 애찬후 한가족 특강: 출애굽기(하).
- ❖ 10월부터 초원별로 하반기 전 성도 가정을 심방합니다.
각 가정들은 초원 담당 장로님과 심방 스케줄을 상의해주세요.
- ❖ 제 1기 남성 양육 성경 공부 (매주 화 저녁 7시)
김은석, 김종문, 서성권, 성시철, 이의로, 최동명, 황강진
- ❖ 매주 금요일 오후 7:30~9:00 개인기도회, 예배당(문의:유창환 집사)
- ❖ 목회자와 티타임을 매월 둘째주 애찬 후에 갖습니다.(문의:문선주 성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오전 9:00, 2부-오전 10:30 -EM (youth) -오전 10:30, Daniel Park -유초등부 - 오전 10:40, 김은석 집사
수요집회	오후 7:3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금요개인기도회	오후 7:30-9:00

에덴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의 울바른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치리의 정당한 집행
리의

제 2018 - 43 호

2018년 10월 7일

주일 1부 예배

- ※ 예배로의 부름 찬양하라 내 영혼아(새 621)
-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5주일) 제 65(인도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恩德)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회중):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施行)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목회기도 김태완 집사

교회소식

봉헌기도

설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27
“교회의 사명” 창 1:14

※ 찬양 십자가 그늘 아래(415 장)

※ 축도 강래성 목사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는 장로 : 강래성

다스리는 장로: 김부익, 금동성, 문명철

905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http://www.edenpchurch.org C:714.733.3486

